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코로나·봉쇄, 중국】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지역 확대 : 상하이, 쿤산, 타이창 등

【코로나·수입물품, 중국】 베이징市, 非콜드체인 수입물품에 대한 방역 강화 적용

【에너지·제재, 미국·러시아】 미국, 러시아 전쟁범죄 규탄 위해 러시아 경제제재 추가 조치 발표

【에너지·제재, EU·러시아】 EU집행위, 석탄 수입 금지 등 6개 부문 추가 5차 對러 제재 채택

【에너지·제재, EU·러시아】 EU회원국,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이

【원유, OPEC·EU】 OPEC, EU의 원유 증산 요청을 사실상 거부, 최악의 석유공급 대란 경고

【에너지, 미국·인도】 미국, 인도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및 중립 입장에 불만 표출

【휴대폰·공급망, 인도】 애플, 인도에서 아이폰13 생산 시작, 중국 공급망 의존 완화 시도

【CPI, 미국】 미국의 '22.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5% 상승 (40년 3개월만의 최고치)

【무역, WTO】 WTO,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반토막날 것으로 전망

【철강, 한국】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소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 반사이익 기대



GVC 뉴스 더하기

- ① 상하이 봉쇄로 촉발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이슈
- ② GVC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나라 '호주'
- ③ 안정적 공급망 확보 위한 美 바이든 정부의 新정책



GVC 기초상식

GVC의 성장과 재편



GVC 돌보기

- ① 원자재 시리즈 1편 - 원자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 ② 러시아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과 병행수입 확대 추진



GVC 전문가

조철(산업연구원) -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원인과 전망'



GVC 소식통

- ① 러-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 ② 무역조정지원제도, 공급망 붕괴 등 통상 피해까지 지원범위 확대
- ③ GVC 재편 관련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미국 투자 진출 설명회, 한·유럽 배터리 데이)



더 알아보기

'뉴노멀시대 물류기업은 사라질까(이상근 지음)' 책 소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코로나·봉쇄, 중국】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지역 확대 : 상하이, 쿤산, 타이창 등

-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매일 2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 봉쇄가 길어지자 상하이는 관내 주거단지를 '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방어구역'으로 3등급 분류해 봉쇄의 정도를 다르게 적용
 - 미국 국무부는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의 비필수 인력과 그 가족에게 상하이에서 철수하라고 명령(4.12)
- 장쑤성 쑤저우시 관할 현급도시인 쿤산(200만명), 타이창(80만명) 등도 봉쇄에 들어갔으며, 해당지역에는 전자·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관련 유의가 필요
-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시에서도 4.9~10일 연속 두 자리수 감염자가 발생하자, 4.11일 1,800만명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2차 핵산(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본사가 위치한 푸젠성의 닝더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교통통제 실시 → CATL측은 현재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CATL의 주가는 하락세

출처 : 이데일리, 한국경제,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 종합

● 【코로나·수입물품, 중국】 베이징시, 非콜드체인 수입물품에 대한 방역 강화 적용

- * 베이징시는 4.1일부터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는 이미 실시 중('인사이트' 5호 참고)
- (배경) 중국의 일부 관영 언론매체가 한국산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
 - '22.4.4일 베이징시 한국인 밀집 주거지역인 차오양구 왕징의 한국 의류 판매점에서 확진자 발생
- (경과) 베이징시는 非콜드체인 수입 화물이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통관 후 최소 7일(소독처리 당일부터 기산)간 세관에 보관되어야 하며 철저한 방역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
 - 대상 : 산업용부품, 수입 액세서리, 과일, 의류 등 모든 수입품 및 국제우편·택배
- (방역 강화) 수입업체는 화물 수취 후 ▲화물을 수입국별로 분류 ▲전문 보관구역 이용 ▲전문가 소독 등 방역조치 시행 ▲내용물 및 포장에 대한 핵산 검사 진행 ▲양성 반응시 방역부서 보고 등 준수
 - 수입 상품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非콜드체인 화물의 통관/저장/운송/사용 정보를 등록하고 핵산검사/소독/운송/판매 등 진행 상황도 기록해야 함
- (전망) 지난 1월과 3월에 이미 광둥성 선전시, 저장성 원저우시, 산둥성 등지에서 수입물품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이번 북경시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중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방역이 더욱 강화될 전망

출처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 【에너지·제재, 미국·러시아】 미 백악관, 러시아 전쟁범죄 규탄 위해 러시아 경제제재 추가 조치 발표

- 4.6~8일 미국 정부 및 의회가 채택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는 아래와 같음
 - (금융) 러시아 최대은행 스버뱅크(Sberbank)와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Alfa Bank)의 SWIFT 접근 차단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기업)은 이들 은행과 거래 금지, 미국 내 러시아 외환 자산으로 부채 상환 금지
 - (무역)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대우 박탈
 - (투자) 미국인(기업)의 러시아 연방 내 신규 투자 금지 명령
 - (국영기업) 러시아 핵심 국영기업에 대한 전면 제재 (미국 내 보유 자산 동결 및 미국인(기업)과의 거래 금지)
 - (기타)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한 전면 제재 (푸틴 대통령의 성인 자녀, 외무부 장관 가족, 전 대통령 메드베데프 등)
- 한편 이번 제재로 미국 내 보유 자산으로 국채 상환이 불가능해진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위험 고조
 - 美 재무부는 JP모건社가 주관하는 러시아 국채 원리금 상환 5.5억 달러와 이자 8,400만 달러 지급(4.4기한) 중지 명령 ⇒ 지급 유예기간 30일 후 디폴트 발생 가능성

출처 : KOTRA 워싱턴무역관

● 【에너지·제재, EU·러시아】 EU집행위, 석탄 수입금지 등 6개 부문 추가 5차 대러 제재 채택

-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4.8일 EU집행위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가 포함된 제5차 대러 제재안을 채택함.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에너지) 연 8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 120일 이후인 8월초에 발효될 예정
 - (금융) 러시아 제2위 은행 VTB 포함 4개 주요 은행 추가 거래금지
 - (물류) 러시아 소유, 운영 선박의 EU 항구 접근 금지 (농식품, 인도적 지원 및 에너지 등에 면제 적용 예정)
 - (수출금지) 양자컴퓨터 및 고급 반도체, 고사양 기계류, 운송 장비 등 100억 유로 규모 수출금지
 - (수입금지) 러시아 신흥재벌 자금흐름을 차단 위해 55억 유로 규모의 목재, 시멘트, 해산물, 주류 등 수입 금지
 - (공적자금) 러시아 기업의 EU 회원국 공공조달 참여 전면 금지, 러시아 공공기관 재정지원배제 등
- AP통신은 EU의 대러 에너지 수입금액 중 석탄의 비중은 약 4% 수준(21년 기준)으로서 푸틴(러시아)과 유럽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적다고 분석(4.8)

출처 : KOTRA 브뤼셀무역관, EU집행위, AP통신

● 【에너지·제재, EU·러시아】 EU회원국,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이

- 4.11일 EU 27개 회원국은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에 대한 차기 제재에 석유 수입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함. 그러나 여전히 5~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러시아 석유 수입금지에 대해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함.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5차 제재에는 합의했지만,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석유와 가스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간 이견 노정
- 이와 관련,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외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등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출처 : AP통신, 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22.4.13)

● 【원유, OPEC·EU】 OPEC, EU의 원유 증산 요청을 사실상 거부, 최악의 석유공급 대란 경고

- OPEC과 EU는 4.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원유 증산 관련 회담을 진행함. OPEC 사무총장은 대러 제재 등으로 일일 7백만 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 차질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OPEC이 이러한 규모의 공급 손실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
- OPEC 사무총장은 원유 시장에서 대러 제재가 사상 최악의 공급 대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시장 수급이 아닌 정치적 요소에 의해 영향받는 만큼, OPEC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

출처 : Bloomberg(4.12)

● 【에너지, 미국·인도】 미국, 인도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및 중립 입장에 불만 표출

- 4.11일 화상으로 개최된 미국-인도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최근 인도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함.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협의체인 쿼드(Quad)의 구성원이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중립' 입장을 고수하는 인도에 불만을 표출함. 사실, 인도는 냉전 시기부터 파키스탄과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등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 중
 - 인도는 UN 인권이사회의 러시아 이사국 자격 정지 표결과 UN총회의 러시아 규탄 결의에도 '기권'을 표명
- 현재 인도의 원유 수입량에서 러시아산 비중은 1~2%(미국산 10%)에 불과함. 그 때문에 백악관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제재와 무관하다고 설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대중국 포위망에 포섭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인도가 '대오'를 이탈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미국의 대중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중·러 양국 역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했는지 최근 각각 왕이 외교부장(3.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4.1일)을 인도로 보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를 다지고 있음

출처 : 한겨레(22.4.13), 문화일보(22.4.12)

● **【휴대폰·공급망, 인도】 애플, 인도에서 아이폰13 생산 시작, 중국 공급망 의존 완화 시도**

-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13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4.11일 밝힘. 애플이 중국에 집중된 생산지를 다각화하고자 시도하는 가운데,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국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중국 외 생산 확대를 위해 인도에 큰 베팅을 하고 있다면서도, 인도가 아이폰 제조의 큰 파이를 차지하려면 내수시장 성장, 수출장려 정책, 물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추산에 따르면 애플의 글로벌 생산에서 인도의 비중은 '20년 1.3%에서 '21년 3.1%로 확대되었으며, 금년에는 5~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전체 생산의 95.3%를 차지하는 중국과 비교하면 아직 중국 외 지역의 생산은 미미한 수준임.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풍부한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중국에서 쌓아온 공급망 생태계를 완전히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WSJ는 지적

출처 : 연합뉴스, WSJ, 로이터 등

● **【CPI, 미국】 미국의 '22.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5% 상승 (40년 3개월만의 최고치)**

- 4.12일 미국 노동부는 '22.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3월보다 8.5% 상승했다고 발표함. 이는 1981년 12월(8.9%) 이후 40년 3개월만의 최고치로서, 시장 전망치(8.4%)보다도 높음
- 물가를 끌어올린 것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임. 식료품은 1년 전보다 8.8%,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2%나 오름.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6.5% 상승했으며, 근원 CPI도 1982년 8월(7.1%) 이후 가장 높음
- 물가 급등세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1년 전보다 8.3% 급등했으며, 중국의 높은 PPI가 중국의 물건을 수입하는 각국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구조임

출처 : 중앙일보('22.4.13)

● **【무역, WTO】 WTO,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반토막날 것으로 전망**

- 4.11일 WTO(세계무역기구)는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을 기존 4.7%(21.10월 발표)의 절반 수준인 2.4~3.0%로 수정 전망함. 또한 올해 글로벌 GDP 성장률은 기존 4.4%(22.1월 발표)에 비해 0.7~1.3%p 낮아진 3.1~3.7%로 전망함
- WT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GDP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지만 이들 국가가 식량과 에너지 등 필수품의 공급원이라는 점 때문에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전쟁의 충격파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국인 유럽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민감한 아프리카·중동의 저소득 국가들의 식량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함

출처 : 서울경제·경향신문('22.4.13), WTO

● **【철강, 한국】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소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 반사이익 기대**

-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각화하면서 국내 철강(강관) 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강관 수요가 늘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임
- EU에서는 LNG 수입 설비, 미국에서는 LNG 수출 설비의 건설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육상에 위치한 저장탱크와 LNG 운반선을 연결하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라인 설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LNG 프로젝트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공급 문의가 늘고 있어 추가 납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함

출처 : 이데일리·한겨레('22.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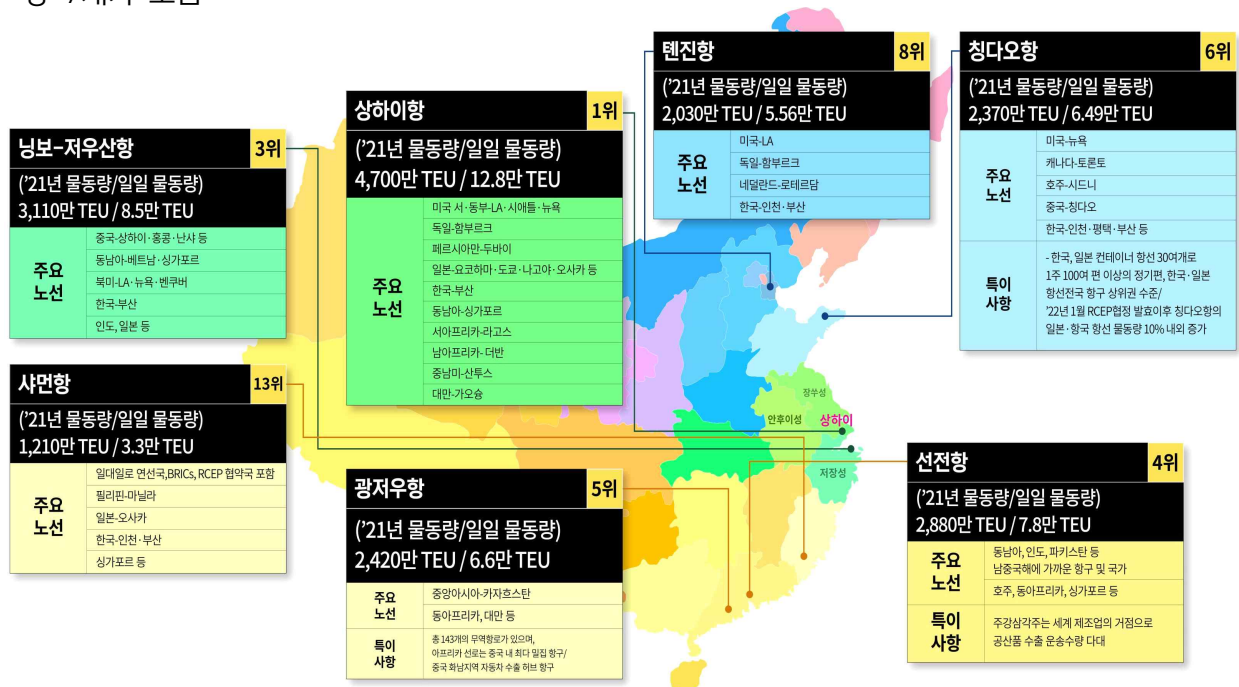


GVC 뉴스 더하기 ① : 상하이 봉쇄로 촉발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이슈

※ 지난 2월까지 약 200명 수준이던 중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3월부터 급증하여 최근에는 하루 2만명 이상으로 폭증한 상황임. 중국내 확진자의 대부분이 발생 중인 상하이는 1, 2차에 걸친 봉쇄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수가 감소하지 않아 무기한 봉쇄 중인 상황 → 상하이의 봉쇄 연장에 따른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항의 운영 차질과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상하이항 등 중국의 주요 항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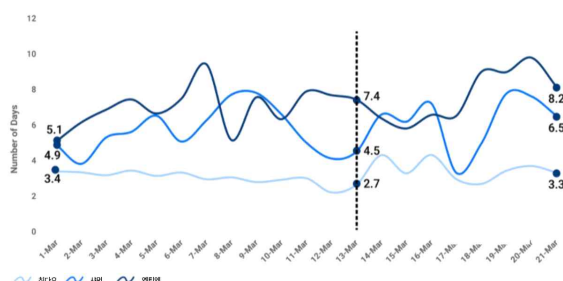
- 상하이항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면에서 약 12년간 글로벌 1위를 유지
 - 컨테이너 처리량('21년 잠정치) : ①상하이항(4,700만TEU), ②싱가포르(3,750만TEU), ③닝보-저우산(3,110만TEU), ④선전, ⑤광저우, ⑥칭다오, ⑦부산, ⑧텐진, ⑨홍콩, ⑩로테르담 순
- 전 세계 20위 항만 중, 중국 본토 소재 항구는 상하이, 닝보-저우산, 선전, 광저우, 칭다오, 텐진, 샤먼 등 7개가 포함



● 3월 중국 선전 봉쇄를 통해 확인한 락다운이 물류에 끼친 영향

- 선전시는 확진자수 증가로 3.14일부터 7일간 전면 봉쇄를 실시, 세계 4위 규모의 선전 엔티엔항은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창고, 트럭운송 기사 노동력 감소로 인한 적체는 불가피했음
- 3.20일 엔티엔항 평균 정박 체류시간 9.8일에 도달, '21년 6월 광둥지역 델타 확산세로 인한 엔티엔항 락다운 당시 정박 체류시간이 약 20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봉쇄의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공급망 플랫폼 Project44는 “엔티엔항을 오픈해 둔 것은 맞지만 시 전체의 봉쇄가 총체적 공급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항만 개방과는 무관해진다”고 분석

< 엔티엔항, 칭다오항, 샤먼항 수출컨테이너 체류시간 >



출처: Project44

- 선전은 애플 부품을 생산하는 폭스콘, 소니, 닌텐도, HP 등 약 30여개의 주요 IT기업이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 허브로서 이번 봉쇄에 따른 물류 적체가 전 세계 주요 산업 최종 수요에 미치는 누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 상하이·홍콩 등 다른 수출 허브의 병목 현상으로 이어졌음

● 상하이 봉쇄 이후 상하이항 운영 동향

- 상하이항은 "24시간 정상 운영 중"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화물 운송 효율성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
 - (상하이항 선적·하역 대기 선박수) 상하이 지역 확진자 급증한 '22년 3월 약 300척 ('21년 3월 약 100척, '17년~'21년 동기 평균 약 75척) [출처: Vesselsvalue], 상하이항 수용 최대 용량은 주당 400척 이상이기에는 아직까지는 항만 대처력이 있다는 자체 평가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
 - (상하이항 선박 체류시간) '22년 3.21~25 기간 평균 체류시간 83시간 도달, 급속한 상승세 → 상하이항은 항구 선박 체류시간을 72시간 이내로 제어해, 비교적 혼잡하기는 하지만, 정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 [상하이국제해운연구센터]
- 통제 조치로 인해 집하운송, 컨테이너 회전율에 영향이 나타나, 일부 컨테이너 선사는 시내 창고 운영을 중단, 선박의 상하이항 접선을 취소하고 인근 지역 타 항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타 지역 방역통제 강화로 목적지 전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수준
 - (목적 항만 전환) "상하이 푸둥공항(PVG), 양산항(洋山), 와이가오차오(外高桥) 컨테이너 항구는 주변 창고지역으로 화물이송이 어려우므로, 통제기간 해운 화물은 자사 고객사에게 Ningbo 등 기타 항구를 선택하기를 제안하고 있음" [Fibs Logistics 중화 지역 책임자]
- 항만 근로자, 트럭 운전사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아 배송이 지연
 - (육로 물류) 상하이항 입출항 제품의 대부분은 장강삼각주 지역(장쑤성, 저장성 등)과 관련 있는데 '상하이항 방역통행증' 보유 필요 등 조건 및 지역 간 교통통제로 화물 운송에 차질
- 상하이 해운네트워크 해운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상하이항의 컨테이너 작업 봉쇄 해제 조치까지는 최소 3~4주는 더 걸릴 것으로 예측

● 전망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급격히 상승한 컨테이너 운임이 코로나19 이전 가격으로 회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상하이발 해운, 물류 효율성 저하는 지속적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으로 작용 가능
- '22년 3월 중국 종합 PMI(구매관리자 지수)는 전월대비 2.4포인트 하락한 48.8로 기준점인 50 이하로 떨어져 경기 수축이 예측, 경기선행지수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3월 제조업 경기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분석되며, 3월 통제 상황에 따라 4월 PMI는 더욱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상하이 인근지역 진출 우리기업)

장쑤성	상하이
우시	상하이
푸저우	상하이
저장성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현대 엘레베이터: 엘리베이터 제조	노력
삼양사: 화학섬유	노력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노력
코스맥스: 화장품	노력
오리온: 식품	노력
농심: 식품	노력
SPC: 식품	노력

- 중국발 공급망 충격 및 중국 경기 위축이 단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장기화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및 국내 생산현장의 충격이 우려되는 바, 지역별·품목별 점검 및 대비가 필요
- 특히, 상하이 인접지역으로서 상하이항을 주로 이용하는 장쑤성의 경우,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한 중국 지역이자 NCM 전구체, 태양전지용 웨이퍼 등 핵심품목의 공급원으로서,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안정적인 상황(최근 5일간 일 6~70명 이하)이지만, 상시적인 동향 파악 필요

출처: KOTRA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뉴스 더하기 ② : GVC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나라 '호주'

※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호주가 주목을 받고 있음. 특히, 러시아에 천연가스·석탄 의존도가 높은 EU는 최근 호주로부터의 자원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관련 자원 가격들도 상승 중

● 자원·에너지 부국 '호주'

- (자원 매장량) 철광석·금·아연(1위), 석탄·보크사이트·니켈·리튬·코발트(2위) 등 전통 자원부터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매장량 세계 1~2위를 차지
 - 철광석 1위(전 세계의 28.4%), 금 1위(20.0%), 아연 1위(27.2%), 석탄 2위(13.9%), 보크사이트 2위(20.0%), 니켈 2위(22.5%), 리튬 2위(16.5%), 코발트 2위(17.1%), 망간 4위(12.3%), 희토류 6위(2.8%) 등
- (자원 생산량) 철광석·보크사이트·리튬의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여타 전통 자원과 핵심 광물의 생산량도 대체로 5위권 안에 드는 자원 생산 강국
 - 철광석 1위(전 세계의 31.6%), 보크사이트 1위(28.3%), 리튬 1위(48.8%), 금 2위(10.6%), 아연 3위(10.5%), 망간 3위(8.5%), 희토류 4위(7.1%), 니켈 5위(6.9%), 석탄 5위(6.2%), 코발트 7위(2.6%) 등

※ 호주 정부, '2022 핵심광물 전략' 발표 ('22.3.16)

- (수요) 탄소중립에 필요한 태양광·풍력·전기차·ESS 등 관련 핵심 광물의 수요 대폭 증가, 운송·항공우주·국방·의료·통신 등 분야의 수요도 지속 증가 예상
- (강점) 세계 최대 수준의 핵심 광물 부존량(니켈·리튬·코발트·망간 등), 친환경·윤리적 생산 방식
- (실행수단) ①리스크 감소 프로젝트(설비 투자·용자, 사업전 단계(타당성조사·시범사업 지원, 금융투자유치 지원 등), ②활성화 환경 조성(필요기술 R&D, 표준화·인증, 공공인프라·특구 등), ③국제 파트너십 강화(가치관 공유 및 기술력 보유한 한국·미국·EU·일본·영국·인도 등 6개국과 수급정보 공유, R&D·표준화 등)

- (재생에너지 및 수소) 광활한 영토에서 비롯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이 풍부하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그린 수소 생산의 강국이 될 것으로 기대
 - 호주는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잉여 전력의 활용방안과 포스트 화석연료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수소를 인식
 - 재생에너지 외에도 풍부한 천연가스·석탄 잠재력을 활용한 블루 수소 생산도 가능 → 수소 생산의 높은 잠재력

● 한-호주 협력 현황 및 방향

※ 한-호주 협력 현황

-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으로서 한국 전체 광산물 수입(268억불)의 41%를 차지(106억불)('20년)
- 호주는 한국의 자원개발 1위 투자대상국으로서 약 50억불을 투자(호주내 18개 광물개발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

- ① 호주의 풍부한 자원 공급 + 한국의 수요 및 우수한 제조·활용기술의 결합
- ② 수소·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저탄소철강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 ③ 글로벌 중견국(유사입장국)의 리더 국가들로서 디지털통상 등 새로운 글로벌 규범 정립에 협력

※ (생각해보기) GVC 위기에는 호주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 중요 → 리스크가 높은 자원개발 사업은 정부의 지원 필수 → 일방적 이익이 아닌 국가간 윈-윈의 협력모델 중요 (해결책은 연결적 사고와 현장에 있을 가능성)



GVC 뉴스 더하기 ③ : 안정적 공급망 확보 위한 美 바이든 정부의 新정책

※ 최근 러-우 사태,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해지며, 미국에서는 자국 생산능력 확보와 동맹국 협업을 통한 공급망 재편성이 대두되고 있음. 지난 '인사이트'(제3호)에서 소개한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1주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지난 1년간의 성과 이외,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정책과 현지반응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신규 정책

- 행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및 각 부처를 통한 생산·수출 지원 확대를 통해 공급망 재편 및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핵심광물과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을 지속 발굴하는 정책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新 공급망 정책 요약

- ① 수출입은행(EXIM)의 핵심품목 생산 및 수출지원 강화 : 생산제품의 25% 수출 필요조건 제시
- ② 재무부(TREAS)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 100억 달러 투입
- ③ 산업계와의 소통강화 : 16대 제조기업과 엑스포 및 라운드테이블 지속 개최
- ④ 교통부(DOT)의 핵심제품 신속 운반을 위한 운송 인프라 투자 : 4억 5천만 달러 투입
- ⑤ 에너지부(DOE)의 배터리 원자재 확보: 희토류 및 주요광물 확보 : 1억 4천만 달러 투입
- ⑥ 친환경 에너지 강화를 위한 수소허브 건설 : 95억 달러 투입
- ⑦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개정 : 2029년까지 미국산 부품 비율 75%까지 확대
- ⑧ 국방물자생산법 타이틀 III, 바이오산업 적용
- ⑨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통상기술위원회(TTC), 쿼드(Quad) 등 활용

● 현지 반응

- 행정부 대응보다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 대응이 공급망 강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반응
 - (반도체법) △산업(IBM, Microsoft 등), △학계, △비영리단체는 반도체법(CHIPS for America)의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촉구하고, 산업 강화를 위해 미국 반도체혁신연합 구축
 - (인적인프라법) 주요 언론사, 美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적인프라법(BBB)이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판단한다고 보도
- 對中 견제 및 공급망 재편성을 위한 무역구제 및 국방물자생산법(DPA) 적용 품목 확대 요청
 - (무역구제) 美 무역대표부는 신속한 불법 수입 대응을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간소화를 주장, 이는 對中견제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정될 경우 상무부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전망
 - (DPA 적용 확대) 美 EV 배터리업계,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주요 배터리 원자재에 국방물자생산법 타이틀 III 적용 필요하다 주장, 적용 시 美 정부의 각종 혜택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시사점

- 바이아메리칸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전망, 해외기업의 전략적 미국 시장 진출 방안 필요
 - 조달 관련,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인 미국 부품 사용 비율을 '29년 75%까지 상향 조정
- 가격특혜제도 도입으로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입장벽 강화
- 美 의회의 강력한 산업육성정책 관련 입법이 예상, 행정부 정책 대비 규모 및 영향 면에서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방안 수립 필요
 - 현재 다양한 산업육성정책이 의회에 계류 중, '22년 연내 법안들의 대규모 입법 전망



GVC 기초 상식 : GVC의 성장과 재편

※ ① 과거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과 ② 현재의 재편 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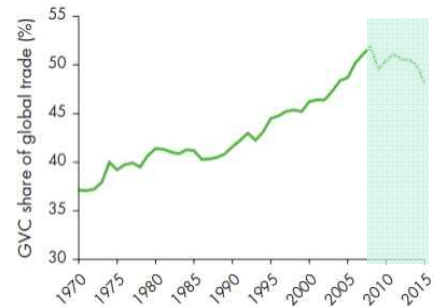
●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와 세계화 둔화기(Slowbalization)

- WB(세계은행)은 국제무역에서의 GVC 비중 변화를 바탕으로 GVC의 성장을 크게 두 기간으로 구분¹⁾

① 초세계화(1990~2008년) : 빠른 GVC 성장을 이룩한 시기

② 세계화 둔화기(2008년~) : GVC 성장이 정체 및 감소한 시기

〈 국제무역에서의 GVC 비중(1970~2015) 〉



(출처: WB)

① 성장 : [초세계화 기간(Hyperglobalization)]

● 초세계화 기간의 특징²⁾

- 지역별로 세부 GVC 성장 패턴이 다름

-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은 GVC가 지역 내(regional) 국가들 사이에서 구축되고 운영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예시) ZARA(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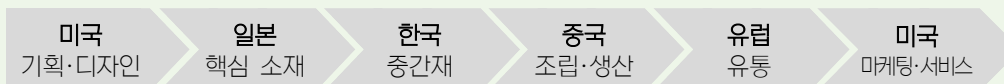


(출처: "패션 해외시장 진출 사례분석 : 자라와 유니클로를 중심으로")

- 1998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유럽, 아메리카 진출 후 2004년 아시아 진출
- 스페인 본사를 중심으로 유럽 내에서 대부분 생산 및 전략 운영(중앙통제)

- 북/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GVC가 지역 외(global) 국가들을 포함해 구축되고 운영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예시) APPLE(미국)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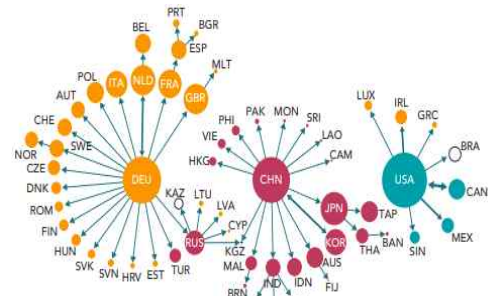
- 미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한·중·일) 및 유럽 전반에 걸친 GVC 구축

- 또한, GVC는 크게 ① 유럽과 중앙아시아 ② 동아시아와 태평양 ③ 북아메리카 3개 권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VC의 성장은 두 가지 큰 특징을 보임

- 첫째, 강화 효과(Intensification Effect) : 국가 간 분업화가 활발해지며, 오른쪽 그림에서 '화살표로 연결된 국가들'이 늘어나는 현상
- 둘째, 규모의 효과(Scale Effect) : 이미 GVC에 포함된 국가가 국제무역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오른쪽 그림에서 '동그라미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

〈 GVC : 강화 효과와 규모의 효과 〉



(출처: WTO)

1) WTO GVC Development Report 2021, WB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Slowbalization은 '세계화 쇠퇴기'로 번역되기도 함
2) WB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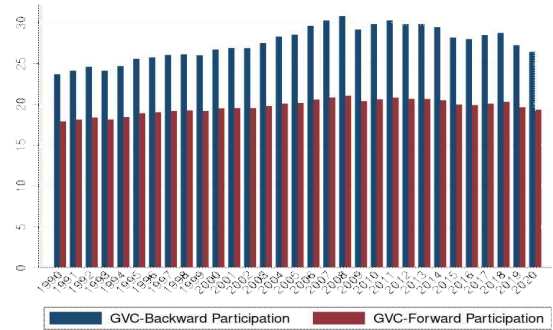
② 재편 : [세계화 둔화기(Slowbalization)]

● 세계화 둔화기의 GVC 참여도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GVC 참여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 (출처: 한국은행)

※ GVC 참여도의 “증가 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GVC 참여도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님

〈 GVC 전·후방 참가율 추이(2000~2020) 〉



(출처: WB, Borin and Mancini)

● 세계화 둔화기의 특징

- 중국은 조립 중심에서 제조 위주로 변화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성장이 수출·투자에서 내수소비 중심으로 변화
- 중국의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이 강화되며 모든 제조 산업 자급률이 상승

* 홍색 공급망 : 원료나 중간재의 국산화 비중을 늘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

(출처: 중앙일보)

〈 중국 수출 산업별 자급률 비교(2011, 2017) 〉



자료 : ADB MRIO 활용하여 자자 계산

(출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신흥국 내수시장이 확대되며 선진국·신흥국 간 수직적 분업구조 변화

- 전통적 GVC는 선진국이 신흥국에 자본재·중간재를 공급하고, 신흥국이 조립·가공하여 최종재를 선진국에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 형태를 의미
- 중국·인도 등 신흥국 소득이 증가하며 최종재 생산 후 자국 내 소비 증가
- 선진국과 신흥국 간 생산 기술 격차가 축소되고 신흥국의 중간재 자급률도 제고

- 보호무역 기조의 심화

-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정책 불확실성, 비관세장벽 확대
- 리스크 축소를 위한 해외생산 거점 다변화와 리쇼어링 증가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의 국별 영향 〉

업종	매우 긍정적	긍정적	기존 공급망 와해
정보통신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한국
자동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섬유 의류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출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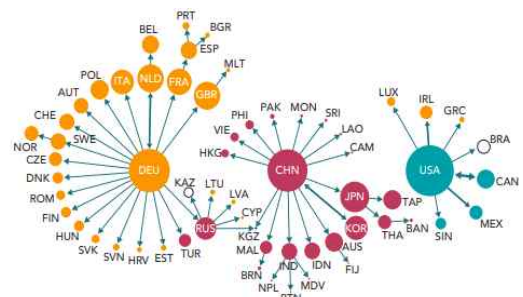
- 세계화(Globalization) → 지역화(Regionalization) 변화

- 아시아권은 중국, 유럽권은 독일, 북미권은 미국을 거점 국가(Supply Hub)로 하여 역내 무역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확대

* 니어쇼어링 : 가까운 국가(Nearshore)에서 이루어지는 아웃소싱(Outsourcing; 외부 위탁생산)

(출처: 한국은행, 국제무역통상연구원, LG경제연구원)

〈 2017년 복합 GVC 〉



(출처: WTO GVC Development Report 2019)



GVC 돋보기 ① : 원자재 시리즈 1편 - 원자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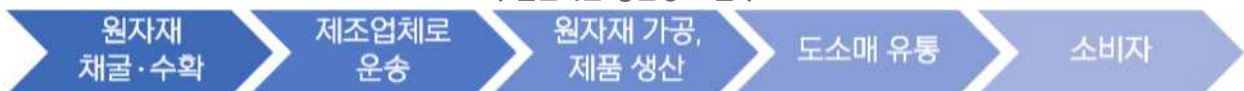
※ “땅 파면 돈이 나오니?” - “아니요. 그런데 옆 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오던데요?”

요새 핫하다는 원자재, 대체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는걸까? 이번 원자재 시리즈 1편에서는 주요 원자재의 국가별 공급 비중과 우리나라의 품목별 자급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 개요

- 원자재는 다른 부품이나 완성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료로, 모든 공급망의 첫 단계에 위치
- 원자재는 크게 에너지 원자재(원유, 석탄 등), 금속(철, 구리 등), 곡물(쌀, 옥수수 등)로 분류할 수 있음

〈 일반적인 공급망 흐름 〉



● 주요 원자재의 국가별 공급비중

- 원자재는 영토가 크고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미국·중국·러시아·호주 등 국가에서 주로 생산
- ‘유럽의 빵공장’ 우크라이나는 옥수수·소맥 등 곡물의 핵심 공급지역이고, 러시아도 원유, 천연가스, 팔라듐, 밀 등 다양한 원자재의 주요 공급국 중 하나임

〈 주요 원자재의 국가별 공급 비중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에너지	원유	미국(14.9%)	러시아(13.0%)	사우디(12.4%)	캐나다(5.5%)	이라크(5.4%)
	석탄	중국(50.6%)	인도(9.2%)	인도네시아(7.4%)	호주(6.6%)	미국(6.4%)
	천연가스	미국(23.8%)	러시아(16.8%)	이란(5.9%)	중국(4.4%)	캐나다(4.4%)
금속	철	호주(36.9%)	브라질(15.7%)	중국(14.6%)	인도(8.3%)	러시아(4.0%)
	구리	칠레(27.8%)	페루(10.4%)	중국(8.3%)	콩고(7.8%)	미국(5.8%)
	알루미늄	중국(57.0%)	러시아(5.6%)	인도(5.5%)	캐나다(4.8%)	UAE(3.9%)
	니켈	인도네시아(30.7%)	필리핀(13.3%)	러시아(11.3%)	뉴칼레도니아(8.0%)	호주(6.7%)
	팔라듐	러시아(42.9%)	남아프리카(33.9%)	캐나다(9.2%)	미국(6.7%)	짐바브웨(6.0%)
곡물	쌀	인도(39.9%)	태국(12.9%)	베트남(12.7%)	파키스탄(8.1%)	미국(5.3%)
	밀(소맥)	EU(18.5%)	러시아(15.8%)	호주(13.5%)	미국(13.5%)	우크라이나(9.8%)
	옥수수	미국(31.8%)	브라질(21.5%)	아르헨티나(19.5%)	우크라이나(13.8%)	EU(2.5%)

(출처: EIA, USGS, USDA)

● 품목별 자급도 현황

- 우리나라에서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그 양이 매우 적음
- 국내 수요 물량 중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1%를 하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자재를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 품목별 자급도 〉

품목명	원유	석탄	천연가스	철	구리
자급도(%)	0.01	0.9	0.3	0.6	0.0
품목명	알루미늄	니켈	쌀	밀(소맥)	옥수수
자급도(%)	0.0	0.0	90.6	0.5	0.7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호(8호)에서 이어집니다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GVC 돋보기 ② : 러시아 자동차부품 수급 차질과 병행수입 확대 추진

※ 러시아는 최근(3.30일) 병행수입 허용 확대를 결정했으며, 병행수입의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 부품으로 알려져 있음. 러-우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 현지 자동차 산업 동향과 자동차 부품 병행수입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함

●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자동차 산업 동향

- 2월 말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에서는 자동차 생산 감소 및 차량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 신차 생산량 동향) '22.3월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 및 상용차 생산량 44% 감소
 - (러시아 신차 가격 동향) '22.3월 전년 동월대비 약 30% 상승 [출처: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stat)]
- 러시아 신차 83%가 러시아 현지에서 조립되고 있는데, 유럽-서부러시아 물류 적체 및 미국의 FDPR(해외 직접제품규칙) 적용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운영 중단 및 생산량 감축이 나타난 것이 원인
 - (르노) 칼리닌그라드 소재 조립공장, 3.23일 공장 운영 임시 중단 선언 → 철수 추진은 아닌 것으로 관측
 - (폴크스바겐) 칼루가, 니즈니이노보고로드 소재 조립공장, 3.3일 임시 중단 발표 → 철수 선언 (러 산업통상부 발표)
 - (AvtoVaz)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기업으로, 부품 조달 어려워져 생산량 대폭 감축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병행수입 확대와 자동차 생산과의 연관성

- 3.30일 러시아는 병행수입 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 자동차 부품이 대표 품목으로 알려져 있음
 - (병행수입 의미)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상표를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 국내에서 판매 및 우회수출이 허용되는 제도
 - (발표 특이사항) 병행수입 인정 상품군 분류에 '고유 상품으로 출원된 품목도 현지 수요에 따라'라는 조항이 포함, 원산지 제조사 승인 없이도 제3국(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을 통해 수입자 또는 유통사가 자동차 부품 정품을 러시아에 유통시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 승용차 부품,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특장차, 트럭 등 수송 차량 부품도 병행수입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자동차딜러협회가 자동차 부품 부족뿐만 아니라 애프터마켓 품목 부족으로 일반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것을 대비하여 차량 부품이 병행수입 대상품목으로 포함되도록 주도하였다고 알려졌다

● 현지반응 및 시사점

- **현 시점 러시아 자동차 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정품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행수입만이 해결책** [러 언론 Vedomosti의 자동차 컨설턴트 세르게이 부르가줄리예프]
 - 병행수입으로 자동차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은 맞으나, 위조품 성행을 막기 위해서는 FAS(러연방반독점원)의 역할(정품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모니터링 등)이 크다고 강조
- 우리 완성차 기업의 현지 시장점유율이 커 계열사 및 부품 협력사들도 현지에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부품 병행수입 관련 현지 동향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14년 루블화 폭락 당시, 서방기업의 철수에 따른 공백을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러시아 경영을 실시한 기아, 현대차는 현재 러시아 시장 점유율 2, 3위에 각각 위치
 - 한편, 이번 러-우 사태는 해당국내 기업경영 위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ESG에 대한 고려까지도 필요



GVC 전문가 : 조철(산업연구원) -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원인과 전망'

※ 요즘 자동차를 주문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함. 또한 각종 차량용 소재·부품의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카플레이션(Car + Inflation)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함. 이와 관련 자동차산업 전문가인 조철 박사로부터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망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 (개요)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구조

- (수요) 차량용 반도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종류 또한 다양하며, 자동차의 **전동화, 자율화, 스마트화**에 따라 그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 * 적용분야 : 안전·ADAS(20%), 새시(17%), 인포테인먼트(17%), 차체(16%), 파워트레인(14%), 기타(16%)
 - * 반도체가 차량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 수준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가 되면 6%로 상승 → 차량당 필요한 반도체 수도 전통 내연기관차 500~600개, 전기차 1,000~2,000개로 차이
 - * 전 세계 전기차 판매대수는 '20년 324만대(전체 판매비중 4.2%)→'21년 675만대(8.3%)로 108% 증가
- (공급)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슬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기업**(반도체 또는 자동차부품) 및 **국가에 분산**
 - * 차량용 반도체 설계는 주로 선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제조)는 주로 중국이나 대만에, OSAT(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위탁) 공정은 중국·대만 등과 더불어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에 산재

● (원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발생 원인

- (수요예측 오류 및 가동중단 사태)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판매가 빠르게 회복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 반도체 주문이 최종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고, 파운드리 및 OSAT는 이미 전자·통신 등 다른 부분에 활용
 - *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가동중단, 일본 르네사스 화재, 말레이시아 OSAT 공장 폐쇄(200만대분 공급 차질)
- (수요 증가 및 공급 한계)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는 한계 존재
 - * 차량용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서 모바일용(대량생산체제 가능)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투자 유인 작음
 - * 차량용 반도체는 구형인 8인치 이하 웨이퍼를 사용하고 28nm 이상의 제조 공정이어서, 최신 파운드리인 5nm 이하나 12인치 웨이퍼 제조와 투자 방향이 맞지 않음

● (현황 및 전망) 단기간 내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와 단기적 불안 요인 상존

- 반도체 제조와 OSAT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를 채택함에 따라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등 단기적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
-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제조공정과 미래 첨단 제조공정 간 차이가 존재하는 한 현재의 **구조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은 해결이 쉽지 않은 측면
 - * 단기적 수급불안, 투자상황 등에 따라 2023년 하반기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
 - * 완성차업체 등이 내재화, 반도체업체와의 제휴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부문에서 한계 존재

● (해결방안) 차량용 반도체의 고집적화를 통해 최신 반도체의 제조 공정을 활용하는 산업구조 형성



자료 : 汽车商业评论, 芯片缺货的终极解决之道, 2022.2.9

- 자동차 부문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반도체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안내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 러시아데스크: 02-6000-6498 / 6499 · 품목상담데스크: 02-6000-6495 / 6496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금융제재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02 조원 · 중소·중견 지원자금: 06 조원
	수출입은행 ·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4)	“ 무역투자24 ”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무역보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 · 1588-3884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 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물류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2-3460-7428)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타 지역 긴급 운송 또는 대체 바이어 찾는 과정 중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KOTRA 물류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창고보관 및 입출고, 포장, 통관, 반품,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비즈니스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러시아 변호사의 수출제재 상세내용, 러시아 기업 조화, 계약서 검토 등 지원
⑦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26/7428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정리 종합전략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등 종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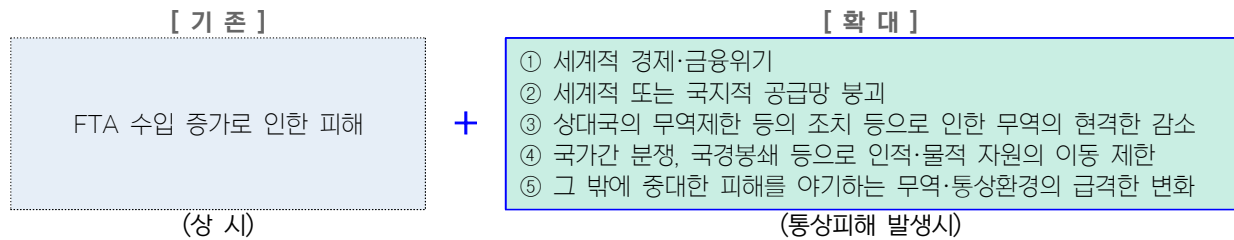
GVC 소식통 ② : 무역조정지원제도,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

* 정부는 4.20일 법률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4.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무역조정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 피해로 폭넓게 확대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①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②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공고하고, 기업의 신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

* 통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간(6개월)과 생산·매출 감소(△5%) 기준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내용은?

- 기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컨설팅·용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 지원을 연계하여 긴급 경영안정 지원, 해외마케팅,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

[現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관계부처 지원 연계 (예시)]	
컨설팅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컨설팅 비용 80% 지원)	+	경영안정	긴급 금융·경영안정 지원
용자	시설 및 운전자금 (고정금리 연 2.0%)		마케팅	수출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무역보험, 온라인 입점 등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		원자재 수급	대체 수입처 발굴, 통관지원, 국내 생산기업 연계 등
			생산성 제고	사업전환지원, 공장자동화, 기술컨설팅 등

● 의의 및 평가

-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美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힘



GVC 소식통 ③ : GVC 재편 관련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GVC 재편 대응 미국 투자 진출 설명회

- 미국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자국 생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 사업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인센티브 등 정책 활용 기회 존재 → 미국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산업별 1:1 상담회를 진행
- 산업별 공급망 재편 방향 및 전략 수립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을 참고할 수 있음
 - (일시/장소) 5월 2일(월), 14:00~17:00 / KOTRA 본사 지하 1층 국제회의장(오프라인 행사)
 - (신청기한) 4월 18일(월), 18:00까지
 - (참가신청) [사업신청\(클릭\)](#) 링크로 참가 접수
 - 1) 설명회 참석기업에게 1:1 상담회 참석 기회를 드리며, 상담시간 별도 안내 예정
 - 2) 상담 희망 주는 최대 5개 주(州)까지 선택 가능, 신청 순으로 1개 주 상담 시간 배정
 - (프로그램) 1부 :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속 미국 유망 산업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IHS MARKIT)
2부 : 미국 주요 주별 유망 투자 분야 및 진출 환경 (미시시피, 버지니아, 워싱턴, 조지아)
3부 : 미국 주요 주별 1:1 투자 진출 상담회 (총 15개 주 참여)
 - (상세내용) [GVC 재편 대응 미국 투자 설명회 사업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문의처) KOTRA 투자 MnA팀 ☎ 02-3460-7359 / dludf77@kotra.or.kr

● 2022 한·유럽 배터리 데이

- 미래차로의 산업 구조 전환 및 전기차 배터리 IPCEI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유럽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유망 우리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가 높음 → 유럽 이차전지 시장 동향 웨비나와 1:1 화상상담회를 개최

IPCEI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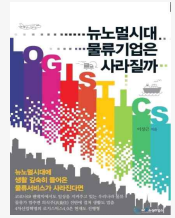
최첨단 혁신과 경제성장을 창출하고 그린딜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EU차원의 회원국 간 공동 R&D 프로젝트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2개국의 29억 유로와 민간 기업의 90억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거점 42개 자동차 기업이 참가

- (일시) 웨비나 4월 27일(수)~28일(목), 15:00~18:00 / 온라인 화상상담 5월 2일(월)~13일(금)
- (신청기한) 4월 26일(화)까지
- (참가신청) [KOTRA 한-유럽 배터리 사업신청 홈페이지\(클릭\)](#)에서 기업 영문 프로필 및 정보(첨부 3,4)를 다운 받아서 양식 작성 후, 하단 메일 접수처로 제출
- (프로그램) 웨비나 : 기업별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동향, 주요 현지 진출 전략, 전기차 및 배터리 셀 생산 프로젝트 소개, 유럽 수요 및 기술 요구와 솔루션 등
1:1상담 : 독일 주요 OEM(BMW, Daimler, Porsche 등) 및 IPCEI 프로젝트에 협력 중인 주요 기업(Britshvolt, Italtvolt, Northvolt 등) 약 30개사와 상담 가능
- (상세내용) [KOTRA 한-유럽 배터리 사업신청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뮌헨무역관 권석진 과장 ☎ +49(0)89-2424-2640 / sjkwon@kotra.or.kr
KOTRA 뮌헨무역관 이현한 컨설턴트 ☎ +49(0)171-939-3053 / hyunhan.lee@kotra-muenchen.org



더 알아보기 : 코로나19가 변화시킨 그리고 변화시킬 글로벌 공급망 '뉴노멀시대 물류기업은 사라질까'(이상근 지음) 책 소개

※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특히 유통·물류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저자는 현재 삼영물류 대표이사로서 30년 이상 물류 업무만 담당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전문가임. '뉴노멀시대 물류기업은 사라질까(2021)'라는 책을 통해 공급망과 물류의 미래를 전망해보기로 하자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 **공급망 관리는 '효율성'과 '리스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 코로나19 이전에는 '효율성'이 중시**
 - 기업은 총비용 절감을 위해 비교우위에 입각한 글로벌 분업화를 구축하고,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기 생산체계(JIT, Just-in Time)를 도입
 - 효율성은 총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리스크 대비를 위해 재고를 비축하고 공급망을 분산하는 것은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
- **기업들은 자연재해, 전쟁, 테러 등 빈도가 낮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 코로나19 발생 이후 물류를 중심으로 공급망 위기를 경험**
- **공급망 단절을 계기로 글로벌 물류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향후 물류는 공급망에 있어 변화된 역할과 새로운 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
 - 다국적기업은 '중국+1' 등 생산 다변화 전략을 통해 생산거점과 공급망을 안정화
 - 해외 이전 대기업은 리쇼어링(본국회귀) 또는 니어쇼어링(수요 인접지 위치)를 통해 생산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역량을 강화
 - 원·부자재와 완제품의 재고 위치 및 물량 조정
 - 공급망 위기 이후 재고 관리의 중심이 JIT에서 안정적 재고 확보로 변모
 -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기존 산업 구분의 파괴와 판매전략 다양화
 - 물류, 제조, 유통, 금융, 서비스 업종이 혼재되면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 진행
 - 산업경계를 넘는 '유연생산시스템(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활성화
 -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판매 채널을 추가하는 '옴니채널' 형태의 매장이 증가
 - 소품목 대량판매가 아닌 다품목 소량판매 기법인 '롱테일 법칙'을 활용한 판매전략 등장
 - 산업물류에서 생활 밀착형 물류로의 중심 변화
 - 대륙간, 장거리, 대량 운송 → 권역내, 단거리, 중소량 운송 활성화
-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경제의 공급망 관리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
 - ① 공급망 문제 발생 시 대체가 가능하도록 다각화하고, 제품 재설계 역량 및 부족한 물량 확보 대응체계를 갖춘 '탄력적 공급망 설계'가 필요
 - ②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핵심 협력사와 고객, 재고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
 - ③ 공급망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만·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지역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망 현안 점검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언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4. 13. 수)

[환율]

	'20말	'21말	'22.3.31	'22.4.8	'22.4.11	'22.4.12	전일비	'21말비
₩/U\$	1,086.30	1,188.80	1,212.10	1,225.10	1,233.10	1,236.20	0.25	3.99
선물환(NDF, 1월물)	1,086.30	1,190.00	1,222.60	1,225.50	1,234.00	1,236.50	0.20	3.91
₩/CNY	166.04	186.51	192.57	194.44	195.26	194.11	△0.59	4.07
₩/Y100	1,051.19	1,032.48	995.48	987.43	984.04	983.77	△0.03	△4.72
Y/U\$	103.34	115.14	121.76	124.07	125.31	125.66	0.28	9.14
U\$/EUR	1.2279	1.1318	1.1165	1.0863	1.0879	1.0861	△0.17	△4.04
CNY/U\$	6.5305	6.3681	6.3455	6.3588	6.3715	6.3687	△0.04	0.01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4.11 (전일)	'22.4.12			
					전일(4.11)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1.5일)	77.12	97.64	98.14	0.5	96.1	27.3
철광석		87.27(11.18일)	120.75	150.60	154.85	2.8	77.4	28.2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2.2일)	9,692.00	10,235.50	10,201.00	△0.3	31.5	5.3
	알루미늄	1,951.50(1.19일)	2,806.00	3,234.50	3,214.50	△0.6	64.7	14.6
	니켈	15,907.00(3.9일)	20,925.00	32,925.00	32,450.00	△1.4	104.0	55.1

[반도체]

	'21	'21.12	'22.1	'22.2	'22.3	4.7	4.8	4.11	4월(~1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42	3.42	3.73	3.88	3.75	3.72	3.68	3.68	3.75
(%, YoY)	8.0	8.0	7.1	△0.6	△11.00	△14.10	△15.90	△15.40	△15.0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7.45	7.45	7.54	7.65	8.0	8.0	8.0	8.0	8.0
(%, YoY)	32.8	32.8	33.7	33.1	33.9	33.9	34.0	34.6	33.0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3.18	'22.3.25	'22.4.1	'22.4.8	전주(4.1)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4540.31	4434.07	4348.71	4263.66	△2.0	△15.5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3.31	'22.4.7	'22.4.8	'22.4.11	'22.4.12	전일(4.11)比	'21년말比
BDI	2217	2358	2061	2055	2031	2035	0.2	△8.2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